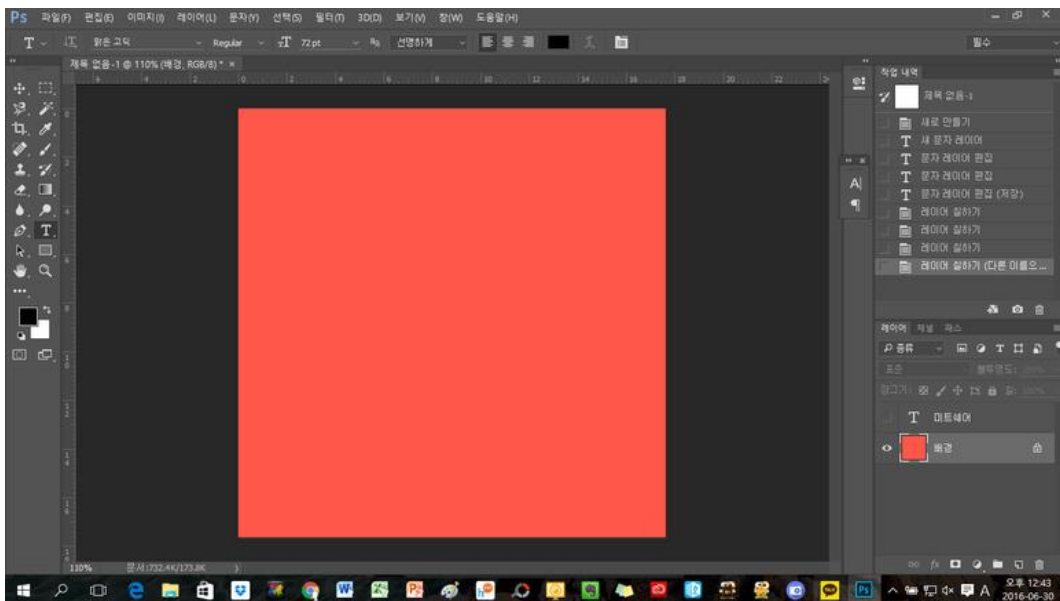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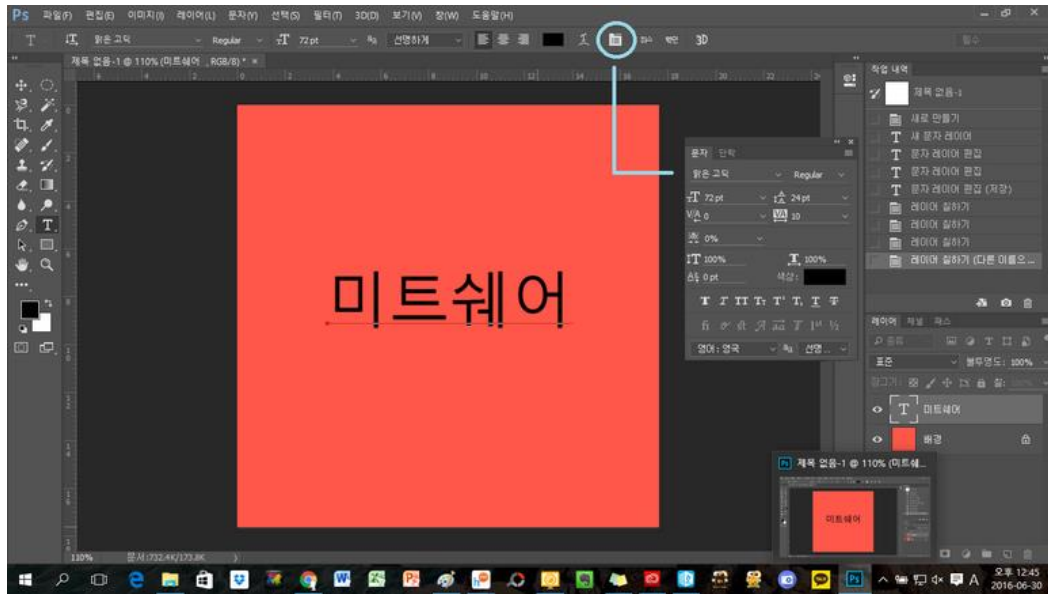
## 01. 포토샵



[ Ctrl + N ] : 새 문서 만들기  
보통 웹에서 쓸 때 해상도는 72  
인쇄용은 해상도 3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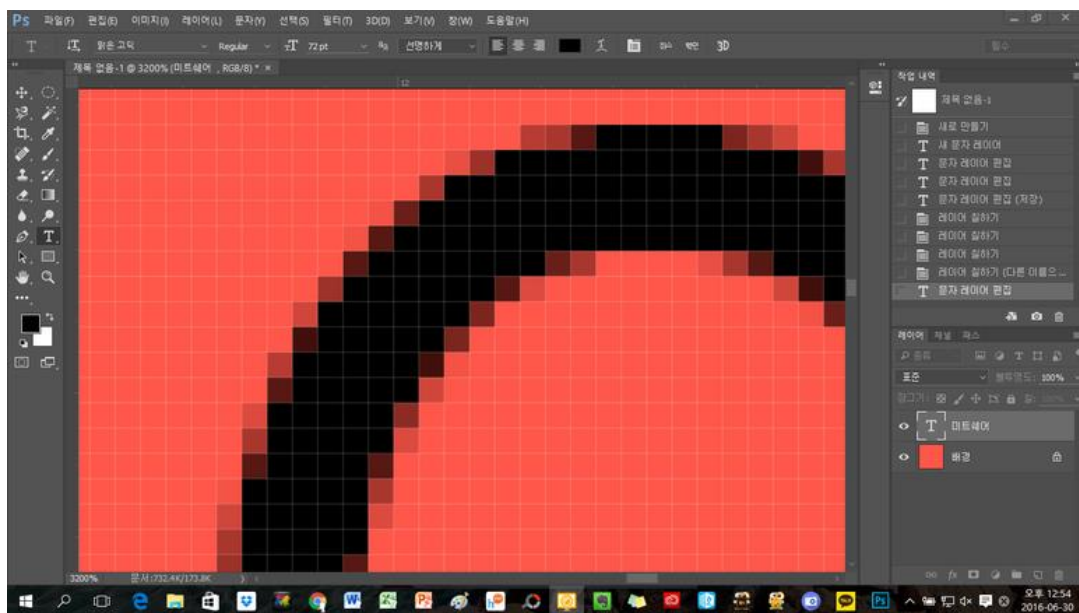


- [ Alt + Delete ] : 선택 영역에 전경색 채우기
- [ Ctrl + Delete ] : 선택 영역에 배경색 채우기
- [ X ] : 전경색/배경색 전환하기
- [ D ] : 전경색/배경색 초기화



단축기 : T -> 글자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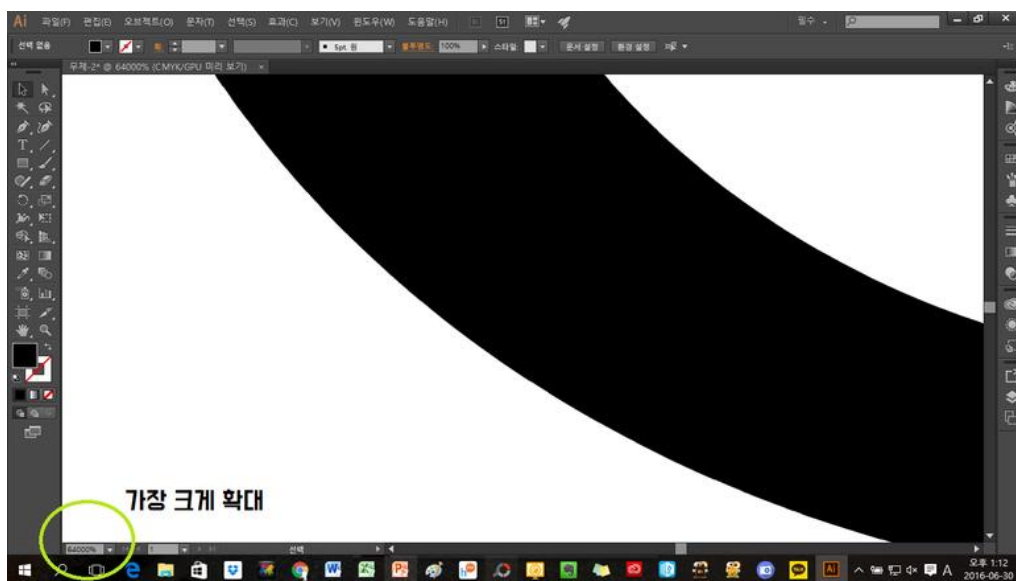
포토샵으로 쓴 미트쉐어 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글씨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포토샵은 픽셀이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기 보이는 박스 하나 하나가 픽셀입니다. 각 픽셀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식으로 확대를 했을 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사진을 축소시켰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토샵은 사진 작업 및 합성 등을 할 때 유용하구요.

## 02.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아무리 확대해도 글자가 깨지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는 벡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리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 등에 많이 사용!

이 두 차이점을 무시하고 어제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전엔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글자 깨짐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NPO지원센터 입니다.  
 센터가 단체의 소식을 '센터 홈페이지 - NPO소식란'에 실어 시민사회 소식을 한 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은 시민사회 소식은 시민들의 발길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시민사회 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민사회 소식을 알기 위한 통로가 분명하다면 시민에게도 단체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요.

센터역으로 행사안내, 토론회, 교육안내, 구인구직, 기타 알림 등 소식을 보내주세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 소식을 전달하는 단체에게는 단체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알림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시민사회 소식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대상: 서울 및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및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등의 소식  
 접수방법: Contact@seoulpocenter.kr  
 전달내용: 단체 행사, 교육, 공지, 채용정보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둔 각종 소식  
 \* 보내주시실 때는 관련 연락처 및 첨부자료와 전달사항/핵심정보를 간추린 텍스트(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용) 을 함께 보내주세요!



포토샵으로 하자 글자 깨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쏟은 시간과 노력이 다져 하늘나라 어딘가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죠.

## 서울시NPO지원센터에게 단체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NPO지원센터입니다.

센터가 단체의 소식을 '센터 홈페이지 - NPO소식란'에 실어 시민사회 소식을 한 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은 시민사회 소식은 시민들의 발길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시민사회 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민사회 소식을 얻기 위한 통로가 분명하다면 시민에게도 단체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요.

센터 메일로 행사 안내 / 토론회 / 교육안내 / 구인구직 / 기타 알림 등 소식을 보내주세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에겐 단체들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알림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및 영리를 목적에 두지 않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의 소식

접수방법 | contact@seoulnpocenter.kr

전달내용 | 단체 행사, 교육, 공지, 채용정보 등 비영리를 목적에 둔 각종 소식

\* 관련 웹자료 및 정부 자료와 전달 사항/핵심정보를 간추린 텍스트(시작장애인용 위한 대체 텍스트용)를 함께 보내주세요.

일러스트를 활용해 작업을 한 것의 경우는 글자의 깨짐 현상이 없고 깔끔합니다!

### 03. 인디자인

인디디자인과 일러스트 포토샵은 모두 Adobe 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매우 자유롭고 용이한데요, 작업 파일을 원본 손상 없이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쓸 경우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선생이다' 의 주인공 디자인 샘의 경우 인디디자인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출판물 제작에 최적화돼 있는 인디디자인이 작업하기에 쉽고 편하다고 합니다. 일러스트와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와 인디디자인을 이용해서 로고 작업이나 표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디디자인 활용 편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 웹자보 디자인 스케치해보기

'디자인은 선생이다' 모임의 최종 목표는 웹자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전에 웹자보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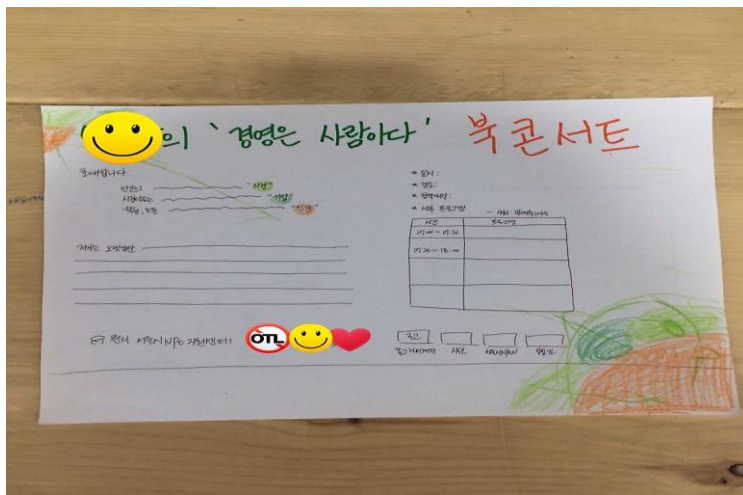


준비물: 갖가지 색깔 펜, A4 용지  
 여러분도 웹자보를 하나 선정해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웹자보를 만들기 전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이 배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웹자보를 무수히 많이 보는데도  
 막상 도안을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ㅠㅠ)

이후 디자인 선생님의 첨삭이 이뤄졌습니다.

### 참여자 Y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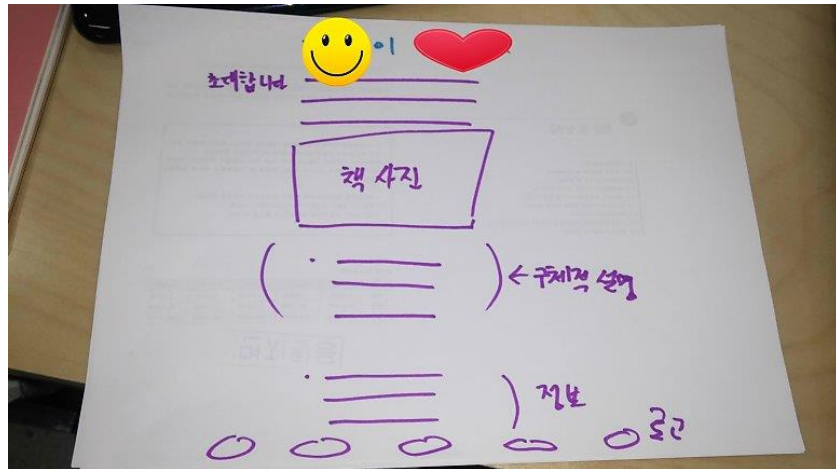


- 웹포스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케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로형으로 만들 것인지 세로형으로 만들 것인지' '내용들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어떤 색들을 이용할 것인지' '이미지는 넣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 문구가 적을 때는 화면에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가로형이 좋다. 사실 웹 포스터에는 최대한 문구가 간략하게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개설자: 김지민



-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웹자보의 경우 문구가 많은 편이다. 이럴 때 가로형을 선택해 모든 문구를 넣는다고 할 경우 글자가 매우 작아져 버린다. 그럼 가독성이 떨어질뿐더러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된다.

- 사진을 넣을 때도 어떤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설정할 것인지 다 고려를 해야 한다

- 로고도 이미지 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스케치를 할 경우 막상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미지는 또 로고가 있는 이미지를 쓸 건지 캐릭터 등을 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참여자 J 씨의 후기

첫 모임에서 북 콘서트 행사를 홍보하는 웹 자보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막연하게 '배우고 싶다'였던 가벼운 마음가짐이 '배워야 한다'로 전환 되어가는 시작의 한 발을 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배운다는 것은 녹록지 않지요. 자신의 성격이 반영된 상상의 웹 자보 그림들을 그리고 평가 보완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디자인 툴을 직업적 필요에 따라 다루는 것과,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다루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자보를 참여자분들이 각자 웹자보를 몇 가지 들고 와 좋은 웹자보와 별로인 웹자보를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린 웹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나의 웹자보 만들기 같이하자!  
(Kakao 같이가치 흥내)